



## 〈茶山 5傳〉에 나타난 정약용의 행인론(行仁論) 연구

김 현 희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 1. 서 론

茶山 丁若鏞(1762~1836)은 조선 후기 대표적 실학자로 『경세유표』, 『목민심서』, 『흙심서』 등 500여 권의 저작물을 남겼으며, 구한 말 사학자 위당 정인보 선생이 “한자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저술을 남긴 대학자”라고 극찬했던 방대한 저술가이기도 하다. 그의 업적은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있지만 문학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에 관련된 연구는 한시(漢詩)의 영역에 국한되어 있고 특히 사회시(社會詩)와 조선시(朝鮮詩)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그가 저술한 전(傳)에 관련된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그동안 다산학(茶山學)의 연구 중에서 문학에 대한 연구가 부진했음은 충분히 수긍이 가는 부분이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경학에 대한 탐구와 사상의 기반을 마련하는 철학이었고 다음은 역대의 이난득실(理亂得失)의 근본을 탐구하는 사학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에게 은택을 베풀고 만물을 기를 수 있는 실용의 학문과 경제에 대한 글이며, 문학이란 그런 것을 모두 충실히 하고 난 뒤 마지막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sup>1)</sup>이었다.

1) 정약용, 『與猶堂全書(여유당전서)』, 第一集詩文集第二十一卷○文集, 書, 寄二兒壬戌, 十二月廿二日康津諱中, 必先以經學立著基址。然後涉獵前史。知其得失理亂之源。又須留心實用之學。樂觀古人經濟文字。此心常存澤萬民育萬物底意思。然後方做得讀書君子。如是然後或遇煙朝月夕。濃陰小雨。勃然意觸。飄然思至。自然而詠。自然而成。天籟瀏然。此是詩家活潑門地。(문장은 만드시 먼저 경학(經學)으로써 근거(根基)를 확고히 세운 뒤에 사서(史書)를 섭렵해서 정치의 득실과 치란(治亂)의 근원을 알아야 하며, 또 모름지기 실용적인 학문에 마음을 써서 옛사람들의 경제(經濟)에 관한 서적을 즐겨 읽고서 마음속에 항상 만백성을 윤택하게 하고 모든 사물을 기르려는 마음을 둔 뒤에야 비로소 독서하는 군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 뒤에 혹 안개 낀 아침과 달 밝은 밤, 짙은 녹음과 가랑비 내리는 것을 보면, 시상이 떠오르고 구상이 일어나서 저절로 읊어지고 저절로 이루어져서 천지자연의 소리가 맑게 울려나올 것이니, 이것이 바로 생동하는 시가인 것이다.)

그러나 정약용의 말을 곱씹어 보면 결코 문학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여러 학문의 총체적인 결과물로, 문학이란 작가의 풍부한 학식과 다양한 경험이 내면에 축적되어 외부로 발산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경학과 사학이 체득되어 저절로 발현된 문장 속에 평소 그의 생각이 어떻게 반영되어있는지 고찰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기존 정약용의 문학연구는 시에 치중되어 전(傳)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문학연구자들의 외면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실학파의 문학은 선조 때 이수광의 『지봉유설(芝蜂類說)』로부터 시작되어, 허균(許筠)의 5전(傳)인 <손곡산인전>·<남궁선생전>·<엄처사전>·<장생전>과 유몽인(柳夢寅)의 한문소설들에 이어진다. 그 후 이익(李瀾)과 안정복(安鼎福)의 우언소설로 발전되었으며, 박지원(朴趾源)의 모든 작품에서 완성된다. 박지원은 <양반전>·<허생전>·<호질>·<마장전>·<예덕선생전>·<민옹전>·<김신선전>·<광문자전>등의 풍자소설과 <열녀함양박씨전>등의 우언소설로써 유학자들을 풍자하고 위정자들의 무능과 위선을 통박했다.

정약용의 5전(傳)은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제1집에 실려 있고, 송옥(宋穉)이 1976년 『문학사상』에 「새로 찾아낸 茶山의 소설, 소품, 시론, 그림」에서 번역 소개한 3편까지 합하여 8편이라고 할 수 있다. 8편의 작품으로는 『여유당전서』에 실려 있는 <죽대선생전(竹帶先生傳)>, <장천옹전(張天慵傳)>, <조신선전(曹神仙傳)>, <정효자전(鄭孝子傳)>, <몽수전(蒙首傳)>이 있고 송옥이 소개한 <현진사전>, <김씨부인전>, <빈사전>이 있다. 그러나 송옥이 소개한 세 작품은 원전이 전하지 않기에 본고에서는 『여유당전서』에 실려 있는 5편의 전(傳)<sup>2)</sup>을 중심으로 작품분석을 하기로 한다.

정약용의 5전(傳)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강태철<sup>3)</sup>의 「茶山 文學의 寓意性 考察」과 방미옥<sup>4)</sup>의 「茶山 정약용의 ‘전’ 연구: 새로운 인물형 구현」, 그리고 이덕근<sup>5)</sup>의 「燕巖과 茶山의 文學比較 研究」와 정순희<sup>6)</sup>의 「정약용 전의 명명과 주제 구현 방식」가 있을 뿐이다. 이는 다른 실학자들의 산문이 지속적으로 연구된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연구 성과라 할 수 있다. 정약용에 대한 연구는 여러 분야에 걸쳐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영역이 넓은 만큼 철학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깊이를 담보하고 있지는 못하는 듯하다. 특히 문학에서는 문학사상과 한시에 대한 논의를 제외하고는 아쉬운 점이 많다. 작품 자체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서사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기에 작품이 진

2) 기본텍스트는 景仁文化社本 『與猶堂全書』로 하고, 국역(國譯)은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발행한 『다산시문집』을 참고로 한다.

3) 강태철, 「茶山 文學의 寓意性 考察」,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4) 방미옥, 「茶山 정약용의 ‘전’ 연구: 새로운 인물형 구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5) 이덕근, 「燕巖과 茶山의 文學比較 研究」,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장론』, 중앙대학교 한국예술연구소, 1979.

6) 정순희, 「정약용 전의 명명과 주제 구현 방식」, 『어문연구』 63, 어문연구학회, 2010.

정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아쉬운 마음에 5傳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 2. 정약용의 문장에 대한 인식

작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모든 글에는 그 사람의 생각이 묻어나기 마련이므로 정약용이 지은 傳을 통해 그의 생각을 더듬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판단된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傳에 대한 연구를 할 때는 편자(서술자, 작자)의 생애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각자의 논지를 전개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정약용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되어 있기에 생애를 다루기보다는 그가 문장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지면을 할애하고자 한다.

정약용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장을 쓸 때 중국의 고사를 용사(用事)하지만, 이것은 비루한 것이다. 반드시 『삼국사』, 『고려사』, 『국조보감』, 『여지승람』 등 연려실기술 및 기타 우리나라의 글에서 사실을 취하고, 지방을 관찰하여 시에 넣어 쓴 뒤에야 비로소 세상에 이름나고 후세에 전해질 수 있다”<sup>7)</sup>고 했다. 이는 정약용이 실학자로서 민족의 주체성과 자존에 대한 각성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글임과 동시에 문학에 대한 애정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글이다. 정약용이 중국의 글을 배길 것이 아니라 우리말을 강조하였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기에 각설하고, 아래 두 글 <이인영을 위해 준 글>과 <오학론>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정약용이 생각하는 문장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대저 문장이라는 것은 어떠한 물건인가 하면 학식이 속에 쌓여 그 문체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네. 이는 기름진 음식이 창자에 차면 광택이 피부에 드러나고 술이 배에 들어가면 얼굴에 홍조가 도는 것과 같은 것인데, 어찌 갑자기 이를 수 있겠는가. 화중(和中)한 덕으로 마음을 기르고 효우(孝友)의 행실로 성(性)을 닦아 공경으로 그것을 지니고 성실로 일관하되 이를 변하지

7) 정약용, 『與猶堂全書(여유당전서)』, 第一集詩文集第二十一卷○文集, 寄淵兒, 書, 雖然我邦之人. 動用中國之事. 亦是陋品. 須取三國史, 高麗史, 國朝寶鑑, 輿地勝覽, 懲愆錄, 燃藜述李道甫所輯. 及他東方文字. 採其實事. 考其地方. 入於詩用. 然後方可以名世而傳後. 柳惠風十六國懷古詩. 爲中國人所刻. 此可驗也. 東事櫛本爲此設. 今大淵無借汝之理. 十七史東夷傳中. 必抄採名跡. 乃可用也(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걸핏하면 중국의 일을 인용하는데, 이 또한 비루한 품격이다. 모름지기 《삼국사》·《고려사》·《국조보감(國朝寶鑑)》·《여지승람(輿地勝覽)》·《징비록(懲愆錄)》·《연려술(燃藜述)》 이도보(李道甫)의 편찬임과 기타 우리나라의 문헌들을 취하여 그 사실을 채집하고 그 지방을 고찰해서 시에 넣어 사용된 뒤에라야 세상에 명성을 얻을 수 있고 후세에 남길 만한 작품이 될 것이다. 유혜풍(柳惠風 유득공(柳得恭))의 십륙국 회고시(十六國懷古詩)는 중국 사람이 편각하여 책으로 발행하였으니, 이것을 보면 증명할 수 있다. 《동사궐(東事櫛)》은 본래 이를 위하여 만든 것인데, 지금 대연(大淵)이 너에게 빌려줄 리가 없으니, 반드시 십칠사(十七史)의 동이전(東夷傳) 가운데 그 이름과 자취를 뽑아 모아야 쓸 수가 있을 것이다.)

않아야 하네. 이렇게 힘쓰고 힘써 도(道)를 바라면서 사서(四書)로 나의 몸을 채우고 육경(六經)으로 나의 지식을 넓히고, 제사(諸史)로 고금의 변에 달통하여 예악형정(禮樂刑政)의 도구와 전장법도(典章法度)의 전고(典故)를 가슴속 가득히 쌓아 놓아야 하네. 그래서 사물(事物)과 서로 만나 시비와 이해에 부딪히게 되면 나의 마음속에 한결같이 가득 쌓아온 것이 파도가 넘치듯 거세게 소용돌이쳐 세상에 한번 내놓아 천하 만세의 장관(壯觀)으로 남겨보고 싶은 그 의욕을 막을 수 없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네. 이것을 본 사람은 서로들 문장이라고 말할 것이네.<sup>8)</sup>

<이인영을 위해 준 글(爲李仁榮贈言)>

정약용이 생각한 문장이란 마음속에 쌓아둔 것이 큰 바다가 넘치듯 하여 한바탕 세상에 내놓아 천하 만세의 장관이 되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 형세를 막을 수 없게 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먼저 충분한 공부가 되고나면 저절로 하고 싶은 말이 생기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토해내 놓지 않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면 저절로 완성되는 것이 문장이다. 즉, 정약용이 생각했던 문장이란 먼저 사람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스스로 수양을 통해 자신을 단련하고 학문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보면 가슴속에 쌓이는 것이 있기 마련이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쌓여 글로 풀어놓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글을 썼을 때 그것이 문장이 되는 것이다. 다음은 <오학론3>에서 밝힌 정약용의 문장에 대한 생각으로 왜 글을 쓰는데 대한 생각이 나타나있다.

이른바 문장이란 무엇인가. 문장이란 것이 허공에 걸려 있고 땅에 펼쳐져 있어 바라볼 수 있고 달려가 잡을 수 있는 것인가. ... 이렇게 된 뒤 어떤 사물(事物)을 만나게 되면, 동감을 느낄 수도 있고 동감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어 감동하기도 하고 격분하는 데 따라 이를 서술하여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거대한 바닷물이 소용돌이치고 눈부신 태양이 찬란히 빛나는 것과 같아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고 멀리는 천지와 귀신도 감동시킬 수 있다. 이것이 이른바 문장인 것이다.<sup>9)</sup>

<오학론3(五學論三)>

위의 인용문에서도 정약용의 문장에 대한 생각을 읽을 수 있다. 문장이란 얼마나 허령(虛靈)한 것인가를 고민하면서도 어떻게 써야 천지와 귀신도 감동시킬만한 문장이 나오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앞서 인용한 <이인영을 위해 준 글>에서는 좋은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 어

8) 정약용, 『與猶堂全書(여유당전서)』, 第一集詩文集第十七卷○文集, 贈言, 爲李仁榮贈言 a\_281\_382a, 夫文章何物。學識之積於中。而文章之發於外也。猶膏梁之飽於腸。而光澤發於膚革也。猶酒醪之灌於肚。而紅潮發於顏面也。惡可以襲而取之乎。養心以和中之德。繕性以孝友之行。敬以持之。誠以貫之。庸而不變。勉勉望道。以四書居吾之身。以六經廣吾之識。以諸史達古今之變。禮樂刑政之具。典章法度之故。森羅胸次之中。而與物相遇。與事相值。與是非相觸。與利害相形。即吾之所蓄積壹鬱於中者。洋溢動盪。思欲一出於世。爲天下萬世之觀。而其勢有弗能以遏之。則我不得不一吐其所欲出。而人之見之者相謂曰。文章斯之謂文章。

9) 정약용, 『與猶堂全書(여유당전서)』, 第一集詩文集第十一卷○文集, 論, 五學論三, 夫所謂文章者何物。文章豈掛乎空布乎地... 然後有與之相遷者。或相入焉。或相觸焉。撓之焉激之焉。則其宣之而發於外者。渤湧汪濊。燦爛煜雪。邇之可以感人。遠之可以動天地而格鬼神。斯之謂文章。

떠한 준비를 해야 할지를 설명했다면 <오학론3>에서는 언제 붓을 들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정약용은 문장을 논할 때 기백(氣魄)과 지향(志向)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함과 아울러 작가의 창작욕망을 격발시키는 매개를 중시<sup>10)</sup>하였다. 이는 창작동인이 되는 요소를 중시하는 것으로 왜 문학작품을 창작하는지를 밝히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그가 왜 5전을 창작하였는지, 어떤 사건을 매개로 글을 썼는지를 살펴보고 입전인물들이 경험한 특수한 일화들을 옮겨 적은 이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다산 5전의 서사구조를 분석하고 작품에 나타난 일화들을 살펴보고 정약용이 어떤 부분에서 동감을 하거나 감동을 하여 傳을 지었는지를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 3. 다산 5전의 서사구조 및 작품분석

앞서 2장에서는 정약용의 문장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았다. 전통적인 동양의 문장에 대한 생각과 마찬가지로 정약용 역시 개인의 수양이 있는 뒤에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이 문장이라 하였다. 따라서 그가 지은 문학작품 속에 그의 생각이 담겨있는 것은 어쩌면 설명이 불필요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전(傳)은 인물내지 사물을 통하여 본질적인 삶의 의미를 해명하고 생애를 통한 현실적 가치관을 부여하며 입전인물의 삶의 원리를 해석하여 후대에 전수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sup>11)</sup> 일반적으로 전은 입전인물의 이름과 가계를 소개[도입부]한 뒤에 일화[행적부]를 적고 작가가 입전인물의 행적에 대해 포폄(褒貶)[논찬부]하는 3단 구성을 가진다. 다산의 5전(傳) 역시 형식면에서 전(傳) 고유의 전통을 잇고 있으며 특정한 인물의 덕성이나 인간적 자질을 특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본고 역시 ‘도입-행적-논찬’이라는 전 특유의 형식에 따라 분석하고자 한다.

#### 3.1 <죽대선생전(竹帶先生傳)>

도입부	① 죽대선생은 이종화(李宗和)의 별호이다. ② 죽대선생은 한산 이씨 목은 이색의 후예이다. ③ 4대째 벼슬을 하지 않아 가난하여 재제공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주변사람들의 업신여김을 받았다.
-----	---

10) 채미화, 「茶山 정약용의 문학사상 연구」, 『한문학논집』 10, 1992, p.198.

11) 김근태, 「조선후기 인물전과 서술방식의 변이양상 시론」, 『송실어문』 7, 1990, p.99.

행적부	④ 순조 때 목만중·홍희운·이기경 등이 신유박해를 일으켰고 채제공의 관직을 추탈할 것을 모의했다. ⑤ 죽대선생은 채제공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편지를 쓰고,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채제공을 변호하는 발언을 한다. ⑥ 이를 들은 이기경이 죽대선생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유배 보낸다. ⑦ 죽대선생이 귀양간지 열흘이 지났을 때, 갑자기 한 여인이 칼을 들고 이기경에게 달려들었다. ⑧ 이 소문이 퍼져 사람들은 죽대선생에게 대단한 딸이 있음을 알았다. ⑨ 죽대선생은 도착한 유배지에서 여러 선비들에게 뜻밖의 대우를 받다가 7년 만에 집으로 돌아와 죽었다.
논찬부	⑩ 외사씨는 논한다. 죽대선생은 진실로 의사(義士)이고 그 딸 또한 의협심이 있는 여자이다.

<죽대선생전>은 도입부에 3개, 행적부에 6개, 그리고 논찬부에 1개로 총 10개의 서사단락으로 나누어진다. 서사단락 ①에서는 입전인물인 이종화(李宗和)의 별호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나온다. 집이 가난하여 돈이 없었기에 가느다란 대나무를 잘라 갓끈과 띠를 만들어서 다녔고 동네의 아이들이 이종화의 모습을 보고 죽대선생이라 놀려 별호(別號)가 된 것이다. 이어 서사단락 ②에서는 죽대선생의 가계가 나온다. 죽대선생의 선조는 한산 사람으로 목은 이색(李穡)의 후예이며 명문가였음을 밝히는 대목이다. 그리고 ③에서는 4대째 벼슬을 하지 못해서 집이 곤궁해졌기에 채제공<sup>12)</sup>에게 의탁하여 지내는 모습이 나오는데 채제공은 죽대선생을 후하게 대했으나 채제공의 빈객들은 모두 그를 업신여겨 궁한 늙은이라 천대했다.

다음은 서사단락 ④~⑥까지 행적부에 나타난 죽대선생의 일화들이다. 순조 때의 권력자인 목만중·홍희운·이기경<sup>13)</sup>이 신유박해를 일으켜 사람들의 생살권을 쥐고서 마치 짐승 사냥하듯이 사람을 죽이거나 귀양 보냈다. 그들은 위세가 등등해지자 채제공의 관직을 추탈할 것을 모의했고 평소 채제공과 관계가 두터웠던 자들에게 관직을 나누어주고 회피하는 자가 있으면 서교인이라는 죄목을 씌웠다. 이들의 횡포에 감히 저항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나, 죽대선생만이 이희운과 이기경에게 편지를 써서 채제공의 억울함을 변호하였다. 그러나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죽대선생은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 찾아가 눈을 부릅뜨고 채제공을 옹호하였다. 이 풍문을 들은 이기경은 다음날 죽대선생을 잡아다가 고문과 매질을 하고 유배를 보냈고, 끝내 채제공의 관직을 추탈하였다.

서사단락 ⑦~⑨는 죽대선생 딸의 이야기이다. 죽대선생이 귀양을 떠난 지 열흘이 지났을

12) 채제공(1720~1799)은 정조 대의 문신으로 자는 백규(伯規)이고, 호는 변암(樊巖)이다. 1801년 황사영백서사건(黃嗣永帛書事件)으로 관직이 추탈되었다가 1823년 복관되었다.

13) 1801년에 정약용과 채제공을 신임하던 정조가 죽고 순조가 왕위에 올랐다. 목만중·홍희운·이기경도 본래는 채제공 계열의 남인이었는데, 서인 쪽으로 넘어가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질렀다. 특히 목만중은 대사간으로 있으면서 신유박해(辛酉迫害)를 일으켜 천주교도를 박해하였다.

무렵 한 여인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한 손에는 큰 칼을 들고 이기경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곧 노복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는데 여전히 큰소리를 치면서 ‘만약 우리 아버지를 놓아주지 않으면, 너는 내 손에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기경은 놀라 애걸하며 죽대선생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하였다. 이는 죽대선생 딸의 이야기를 삼입시켜 죽대선생의 의협심을 높이는데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딸의 행동은 곧 소문이 되어 온 나라에 퍼지게 되었고 죽대선생이 유배지에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서사단락 ⑩은 논찬부로 정약용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부분이다. 정약용이 평소 알고 지내던 죽대선생은 두려워하는 표정으로 마치 말을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나 오로지 죽대선생만이 체제공을 변호하는 말을 하였기에 그를 의사(義士)라고 평가하였고 그의 딸 역시 의협심이 있는 여자라고 평가하였다.

### 3.2 <장천용전(張天慵傳)>

도입부	① 장천용(張天慵)은 해서 사람으로 본래 이름은 천용(天用)이었다.
행적부	② 정약용이 통소소리를 듣고 싶어 하자 어떤 이가 장천용을 소개하였는데, 정약용은 억지로 통소를 볼게 할 수 없으니 뜻을 전하기만 하고 강제로 데려오지 말라한다. 장천용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 나타났다. ③ 다음날 정약용이 다시 불러 술을 한잔 주니, 장천용은 모두가 경탄할만한 그림을 그리고 또 다시 만취하여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나갔다. ④ 이듬해 장천용은 단청을 보수하는 일을 하던 중 같이 일하던 사람의 상장(喪杖)을 가져다가 통소를 만들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 성을 내자 천용은 떠나버렸다. ⑤ 몇 개월 뒤 정약용은 장천용에게서 가람의 산수를 그린 그림을 받았고 올해는 영동으로 이사 가서 살 것이라는 말도 전해 들었다. ⑥ 장천용의 아내는 용모가 못생기고 중풍을 앓고 있으면서 성품도 불량하였지만 장천용은 늘 아내를 사랑하였기에 이웃들이 모두 특이하게 여겼다.
논찬부	없음.

<장천용전>은 도입부 1개, 행적부 5개로 논찬부 없이 총 6개의 서사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섯 작품 중에 유일하게 도입부와 행적부만 있고 논찬부가 빠져 있다. 정약용과 입전인물이 그림을 주고받을 만큼 가까운 사이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강조하기 위해 논찬부를 생략한 듯 보인다. 형식적으로는 논찬부가 빠져있으나 작품 곳곳에 정약용의 평가가 담겨 있어 사실상 인물에 대한 평가는 되어 있는 셈이다.

서사단락 ①은 도입부로 장천용(張天慵)의 사는 곳과 이름에 대해 나와 있다. 그는 해서

사람으로 본래 이름은 천용(天用)이었는데 관찰사 이의준이 그와 함께 지내면서 이름을 천용(天慵)으로 고쳐 불렀다. 이름의 한자가 ‘쓸 용(用)’에서 ‘계으를 용(慵)’으로 바뀐 것을 보면 서사단락 ②에 나와 있듯이 관리들의 부름에 쉽게 응하지 않아서가 아닐까하는 추측을 해본다.

서사단락 ②~⑥은 행적부로 정약용과 장천용이 만나게 된 계기와 장천용의 특이한 행적들로 이루어져있다. 먼저 서사단락 ②에서는 정약용이 곡산 부사로 부임하여 연못을 파고 정자를 세운 뒤 통소소리를 듣고 싶다고 홀로 탄식하자, 어떤 이가 앞에 나와 장천용을 소개하며 통소를 잘 불고 거문고를 잘 타기는 하지만 관부에는 잘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였다. 이에 정약용은 ‘사람을 붙들어 데려올 수는 있지만 어찌 강제로 통소를 불게 할 수 있겠는가, 가서 뜻만 전하라.’라고 하였다. 장천용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 정약용 앞에 나타났고, 사람들이 부축하여 데리고 나갔다. 다음날 정약용이 다시 불러 술을 한잔 주니, 장천용은 자세를 가다듬고 자신의 장기는 통소가 아니라 그림이라 말하고, 모두가 경탄할만한 그림을 남긴 채 다시 만취하여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나갔다. 그리고는 이튿날 금강산으로 들어가 버렸다.

서사단락 ④에는 장천용의 특이한 일화가 나온다. 정약용과의 만남이 있던 이듬해에 장천용에게 덕을 베풀었던 사람이 천용에게 단청을 보수하는 일을 맡겼다. 같이 일하는 사람 가운데 상복을 입은 자가 있었는데 장천용이 그의 제사 때 사용하는 지팡이 [喪杖] 를 가져다가 통소를 만들어 태백산성 꼭대기에 올라가 밤새도록 통소를 불다가 돌아왔다. 그리고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 성을 내자 그 길로 떠나버렸다. 남의 상례 때 사용하는 지팡이를 가지고 통소를 만들어 버리는 독특한 장천용의 모습에서 예인(藝人)의 주체할 수 없는 무언가가 느껴진다.

다음으로 서사단락 ⑤에서는 장천용이 몇 개월 뒤 정약용에게 가람의 산수를 그린 그림을 보내며 올해는 영동으로 이사 가서 살 것이라는 말도 전하였다. 그리고 서사단락 ⑥에서는 장천용의 아내에 대해서 나오는데 용모가 못생기고 증풍을 앓고 있으면서 성품도 불량하여 늘 욕을 하며 누워있다고 한다. 그러나 장천용은 변함없이 아내를 사랑하였기에 이웃들이 모두 특이하게 여겼다. 악기를 잘 다루고 그림마저도 잘 그리는 장천용은 정약용으로 하여금 입전인물로 선택하게 할 만한 충분한 매력이 있었다.



### 3.3 <조신선전(曹神仙傳)>

도입부	① 조신선은 책을 파는 아케로 붉은 수염에 우스갯소리를 잘하고 눈이 번쩍거린다.
행적부	② 조신선은 고아나 과부에게 서책을 싼 값에 사들여 팔 때는 배로 받았다. ③ 사는 곳을 숨겨서 어디에 사는지 확실치 않다. ④ 조신선의 모습은 병신년과 경신년, 그리고 경자년에도 변하지 않았다. 앞뒤 모두 계산해 보면 100살이 넘은지 오래다.
논찬부	⑤ 외사씨는 논한다. 조신선은 욕심이 많으면서도 오히려 늙지 않았으니 말세가 되어 신선도 시속(時俗)은 면할 수 가 없는 것인가?

<조신선전><sup>14)</sup>은 도입부 1개와 행적부 3개, 그리고 논찬부 1개로 총 5개의 서사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섯 작품 중에서 가장 분량이 적으며 유일하게 실명이 나와 있지 않고, 용모에 대한 평가가 섬세하게 나타나있다. 먼저 도입부인 서사단락 ①에서는 붉은 수염에 우스갯소리를 잘하고 눈에는 번쩍번쩍 신광(神光)이 서려있는 도인 같은 조신선의 풍모를 그리고 있다. 그리고 모든 구류 백가의 서책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으며, 책에 대해 술술 이야기하는 모습이 마치 군자와도 같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다음은 서사단락 ④~⑥까지 조신선의 행적을 나타낸 부분이다. 조신선은 도인과 같은 풍모와 군자와도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욕심이 많아 고아나 과부의 집에 소장되어 있는 서책을 싼 값에 사들여 팔 때는 배로 받았다. 이를 보고 사람들이 모두 언짢아했으며 정약용의 생각도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정약용이 병신년 무렵에 조신선을 보았는데 얼굴과 머리가 4~50쯤 되어 보였다. 그러나 경신년에도 마찬가지로의 모습이었으며 경자년 역시 모습이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소릉이공이 병자년에 처음 봤을 때도 4~50쯤 되어 보였다고 하였으니, 앞뒤 모두 계산해 보면 조신선의 나이는 이미 100살이 넘은지 오래다.

마지막 논찬부에서 정약용은 조신선에 대해 욕심이 많다고 하면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다. 조신선은 붉은 수염을 가진 신선의 모습을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결국에는 불우한 처지에 있는 과부와 고아들에게 싼값에 책을 사서 비싼 값에 팔아넘기는 서적중개인일 뿐이다.

14) 영·정조 대에 ‘조신선’으로 알려진 책래 ‘曹生’의 이야기로 정약용의 <조신선전> 외에도, 조수삼의 <육서조생전>과 조희룡의 <조신선전>이 있다. 조수삼의 <육서조생전>은 조생의 신선으로서의 신이한 면모보다는 책을 팔아 술을 마시며 방달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한 시정인의 모습을 부각시켜 놓았다. 그리고 조희룡의 <조신선전>은 정약용과 같이 조신선을 폄하하지 않고 여향인의 자존의식을 드러내기 위해 전을 집필한 의도가 나타난다. (박희병, 「이인설화와 신선전(II)」, 『한국학보』 15, 일지사, 1989, p.72, 참조.)

### 3.4 <정효자전(鄭孝子傳)>

도입부	① 정효자의 본래 이름은 정관일(鄭寬一)로 부모에 대한 효심이 지극했다.
행적부	② 여섯 살 되는 해에 밭에서 일하시는 아버지가 걱정되어 밖에서 기다렸다. ③ 몇 년 뒤에 아버지가 멀리 장사를 나가 있으면서 편지에 ‘평안하다’고 썼으나 글자의 획이 떨림을 보고 아버지가 아픈 것을 알고 눈물을 흘렸다. ④ 아버지가 돌아올 때를 미리 알고 따뜻한 밥을 준비해 놓았다. ⑤ 열두 살 때 아버지가 병이 드니 하늘에 기도하여 병이 낫게 하였다. ⑥ 학문에 힘써 통하지 않은 것이 없었지만, 집이 가난하여 약을 팔아 부모를 봉양하였다. ⑦ 정효자는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아 아버지를 위로하였다. ⑧ 정효자의 아버지는 관을 묻으며 ‘나는 아들을 잃고, 친구를 잃고, 스승을 잃었다’며 곡을 하였다.
논찬부	⑨ 외사씨는 논한다. 정관일은 진정한 효자였으며 그의 아버지 또한 인자한 아버지였다.

<정효자전>은 도입부 1개와 행적부 7개, 그리고 논찬부 1개의 서사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사단락 ①에서는 정효자의 본래 이름이 정관일(鄭寬一)이라는 것과 태어나면서부터 성품이 착하여 부모에 대한 효심이 지극했다는 것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서사단락 ②~⑧은 정효자의 행적을 서술한 부분으로 4가지의 효행담과 정효자의 삶이 나타나 있다. 먼저 서사단락 ②에서는 정효자가 여섯 살 되던 해에 밭에서 일하시는 아버지가 걱정되어 밖으로 나가 창문 아래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온 뒤에야 편히 쉬었다는 이야기, 서사단락 ③에서는 아버지가 멀리 장사를 나가 있으면서 편지에 ‘평안하다’고 썼으나 글자의 획이 떨림을 보고 아버지가 아픈 것을 알고 눈물을 흘린 이야기, 서사단락 ④에서는 아버지가 먼 곳을 다녀올 때면 미리 알고 항상 따뜻한 밥을 준비해 놓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서사단락 ⑤에서는 열두 살 때 아버지가 병이 드니 이슬을 맞아가며 하늘에 기도하여 병이 낫게 하였다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정효자가 장성하여서는 학문에 힘썼고 통하지 않은 것이 없었지만, 집이 가난하여 약을 팔아 부모를 봉양한 것과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아 아버지께 알리고 자신의 두 아들로 마음을 위로하라 당부하며 서른 살에 죽었다는 그의 행적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그리고 정효자가 죽자 그가 미리 부모의 장지로 보아둔 곳에 묻혔고, 그의 아버지는 관을 묻으며 ‘나는 아들을 잃고, 친구를 잃고, 스승을 잃었다’라고 곡을 하였다.

끝으로 논찬부에서 정약용은 부자는 천성지친(天性至親)이나 사사로운 이익에 의해 부자 지간에 아첨하는 말을 하기도 하는 세상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며, 정관일은 진정한 효자였으며 그의 아버지 또한 인자한 아버지였다고 평했다.

### 3.5 <몽수전(蒙叟傳)>

도입부	① 이헌길(李獻吉)의 자는 몽수(夢叟)이고 또 다른 자는 몽수(蒙叟)이다. ② 이철환 선생을 중유하여 많은 책을 보았는데 『두진방(痘疹方)』을 보고는 홀로 연구하였다.
행적부	③ 을미년 봄에 한양에 마마가 먼저 백성을 구제하려고 하였다. ④ 몽수가 못된 무리의 핏에 빠져 자취를 감추자 성안은 그를 찾는 일로 떠들썩하였다. ⑤ 몽수의 의술이 뛰어난을 알려주는 또 다른 일화가 있다.
논찬부	⑥ 외사씨는 논한다. ‘윤희는 덕을 이룬 조광조이고, 조광조는 덕을 이루지 못한 윤희이다.’라는 몽수의 답론을 통해 몽수의 성격을 드러내었다.

<몽수전>은 도입부 2개, 행적부 3개, 그리고 논찬부 1개로 총 6개의 서사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사단락 ①과 ②인 도입부에는 입전인물인 이헌길(李獻吉)의 이름과 가계가 나타나 있다. 먼저 그의 자는 몽수(夢叟)이고 또 다른 자는 몽수(蒙叟)이며 왕손으로 혁혁한 가문에서 태어났음을 설명하고, 그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기억력이 뛰어났으며 이철환 선생을 중유하여 많은 책을 보았다. 그리고 왕족이기에 권장되지 않는 천연두에 관련된 책인 『두진방(痘疹方)』을 읽고 홀로 공부하였다.

행적부는 서사단락 ③~⑤에는 몽수가 의술을 펴나가는 일화들이 전개된다. 먼저 서사단락 ③에서는 을미년 봄에 한양에 마마가 먼저 몽수가 백성들을 구제하려고 하였으나 상복을 입고 있어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나 잠깐 사이에 관을 메거나 들것을 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백여 명이 되는 것을 보자, ‘의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법에 구애되어 모르는 체 하는 것은 불인(不仁)한 것’이라는 생각에 집으로 돌아와 사람들을 구했다. 서사단락 ④에서는 몽수가 못된 무리의 핏에 빠져 자취를 감추었으나, 몽수를 찾는 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해진 일화를 그리고 있다.

또 다른 일화는 서사단락 ⑤에 나타난다. 어떤 아낙이 몽수에게 찾아와 병든 남편을 구해주기를 청하였는데 몽수는 그 부인이 처방대로 행하지 못할 것이라며 알려주지 않았다. 부인은 남편을 살릴 수 없게 되자 남편을 따라 죽기위해 독약인 비상을 술에 섞어 놓았다. 부인이 잠시 나갔다 돌아오자 남편이 비상이 든 술을 마셨고 부인은 몽수에게로 달려가 구해달라고 하였다. 몽수는 전에 말한 처방이 독약인데 부인이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말하지 않았으며 하늘이 시킨 일이니 남편은 살아있을 것이라 말하였다. 집에 돌아가 보니 남편의 병은 나아 있었다.

논찬부인 서사단락 ⑥에서는 정약용의 평이 나타나 있다. ‘윤희는 덕을 이룬 조광조이고, 조광조는 덕을 이루지 못한 윤희이다.’라는 몽수의 답론을 통해 몽수는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고 『두진방』을 공부한 것처럼, 어떠한 대상에 대해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죽대선생전>·<장천용전>·<조신선전>·<정효자전>·<몽수전>의 서사를 ‘도입부-행적부-논찬부’의 3단 구성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이미 살펴본 서사 구조를 토대로 하여 다산 5전에 나타난 정약용의 인간관에 대해서 仁을 중심으로 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 4. <다산 5전>에 나타난 정약용의 행인론(行仁論)

정약용은 23세에 『중용강의(中庸講義)』부터 시작하여 『논어고금주(論語古今註)』, 『맹자요의(孟子要義)』, 『대학공의(大學公議)』, 『중용자잠(中庸自箴)』을 저술하였다. 이 중에서 논어 해석에서 드러나는 중심개념인 인(仁)을 중심으로 그가 인간관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공자는 번지(樊遲)가 ‘인(仁)’에 대해 묻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愛人]’라고 답하였다. 이러한 공자의 인(仁)에 대해 정약용은 ‘인(仁)이란 사람을 향한 사랑이다. 자식이 부모를 향하고, 아우가 형을 향하고, 신하가 임금을 향하고, 수령이 백성을 향하는 것이요, 무릇 사람과 사람이 서로 향하여 애뜻하게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즉, 정약용은 ‘인(仁)’이라는 글자의 형태가 ‘人’과 ‘二’의 결합이기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것이 인(仁)이라고 생각하였다.<sup>15)</sup>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서로 애뜻하게 사랑하는 것이라며 공자의 인(仁)에 실천적 의지까지 더하여 자신의 실학사상의 밑거름으로 삼았다. 이러한 그의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사람 사이의 관계로 다산 5전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죽대선생전>은 죽대선생인 이종화와 채제공의 관계가 나타나있는 작품이다. 본디 죽대선생의 집안은 명문대가였으나 4대째 벼슬을 하지 않아 집도 없을 만큼 가난해져서 채제공의 집에서 집과 곡식을 얻어 살았다. 채제공의 집에 드나드는 빈객들은 모두 그를 궁한 늙은이일 뿐 아무 능력도 없다고 업신여겼지만 채제공만큼은 후하게 대하였다. 이 때 죽대선생이 매우 곤궁한 상황에서 채제공에게 도움을 받은 것이 두 사람 관계의 시작이다. 신유박해가 일어나 채제공의 관작을 추탈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 모두들 목만중·홍희운·이기경의 권력에 감히 저항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죽대선생은 채제공이 이미 죽었음에

15) 금장태, 『인과 예, 다산의 논어 해석』,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p.123.

도 불구하고 홀로 의리를 지켜나갔다. 본인의 별호에 맞게 대나무 갓끈을 매고 대나무 띠를 두르고 여러 사람이 모인 곳으로 나가 큰 소리로 채제공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것은 채제공에 대한 죽대선생의 애뜻한 마음을 나타내는 일화로 두 사람 사이에 서로를 향한 마음이 존재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상국(채제공)은 그를 후하게 대우하였으나 그 문에 드나드는 빈객은 모두 선생을 업신여겨 궁한 늙은이일뿐 아무 능력도 없다고 하였다. … 두려워하는 표정으로 마치 말을 못할 듯이 보이는 사람은 오로지 죽대선생뿐이었다. 그런데 죽대선생만이 능히 변옹을 위해 한마디 하였으니, 선비를 안다 하겠는가. 선생은 진실로 열렬한 의사(義士)이고, 그 딸 또한 의협심 있는 여자였다.(相國厚遇之。而賓客出其門者皆易之。以爲窮老無能爲也 … 恂恂如不能言者。乃唯竹帶先生獨能爲樊翁一聲。士其可知耶。先生固烈烈義士。乃其女亦節俠也哉)

<장천용전>은 장천용과 정약용의 관계가 드러난 작품이다. 정약용은 아래 인용문에서와 같이 장천용에게 ‘뜻을 전하기만 하고, 오려고 하지 않거든 강제로 데려오지 말라’라고 하면서 기존의 관리들과는 다르게 장천용을 한 사람의 예인(藝人)으로 대우하였다. 평소 인(仁)을 실천하려는 정약용의 생각이 발현되어 나타난 언행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격적 대우가 장천용의 마음을 돌려 그를 관부로 오게 만들었고, 두 사람의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다음날 술에서 깨어난 장천용은 자세를 가다듬고 자신의 장기는 통소가 아니라 그림에 있다며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십 폭의 그림을 그리고 만취하였다. 그리고 그 인연은 계속 이어져 정약용이 해임되어 돌아간 뒤에도 장천용은 가람의 산수를 그려서 선물을 보내고 자신의 소식을 알려왔다.

나는 말하기를, “안 된다 그 사람을 붙들어 이곳에 데려올 수는 있겠지만 어찌 강제로 통소를 붙게 할 수 있겠는가. 너는 가서 나의 뜻을 전하기만 하고, 오려고 하지 않거든 강제로 데려오지 말라.”하였다. 얼마 있다가 심부름 갔던 자가 장생이 이미 문에 와 있다고 아뢰었다.(余曰否。使其人而誠有執也。可擁之使至。又豈能擁之使吹哉。汝其往喻吾意。不肯毋相強也。俄而使者復張生已至門矣)

<조신선전>은 조신선과 그에게 책을 판 과부·고아들의 관계를 담아낸 글이다. 물론 이들의 관계가 이 작품의 전부는 아니지만 조신선의 풍모는 마치 신선 같고 그의 박식함은 군자 같으나 모든 것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일 뿐, 사실은 욕심 많은 서적중개인이다. 특히 고아나 과부의 집에 소장되어 있는 책을 헐값에 사들여 많은 이윤을 남기고 되팔아 사람들이 그를 언짢게 생각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 이윤을 남기는 것은 당연하나 처지가 불우한 이들에게 폭리를 취하는 것은 도(道)에 어긋나는 행위로 인(仁)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 결과, 조신선은 책을 판 사람들에게 원망을 사게 되었다.

그러나 욕심이 많아, 고아나 과부의 집에 소장되어 있는 서책을 싼값에 사들여 팔 때는 배로 받았다. 그러므로 책을 판 사람들이 모두 그를 언짢게 생각하였다.(而性多慾。凡孤兒寡妻之家所藏書帙。輒以輕賈取之。及其賣之也。倍讎焉。故賣書者多短之)

<정효자전>은 효자 정관일과 그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주목한 작품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성품이 착하고 효심이 깊었던 정효자는 신이할 정도로 놀라운 효행담을 통해 그 효심이 드러난다. 앞서 서사를 분석하면서 파악했듯이 대부분의 분량을 효행담에 할애하고 있으면서도 정효자가 유년시절 보여준 행실의 백분의 일 정도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효행담보다도 정효자가 죽고 나서 그의 아버지가 하는 말을 통해 서로 얼마나 기대고 있었는지를 추측할 수 있다. 곧 정효자는 인(仁)을 행하는 구체적인 실천으로서 효(孝)를 행하고, 아버지도 인자한 모습으로 아들의 모습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서로 지극히 사랑했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아버지는 시삽이라고 하는데 관을 광중에 묻을 때 곡하며 말하였다. “네가 한 번 죽음으로써 나는 세 가지를 잃었다. 아들을 잃고 친구를 잃고 스승을 잃었다.”(父曰始攝。臨其壙而哭之曰汝一瞑而我有三失。失子焉失友焉失師焉)

<몽수전>은 몽수 이현길과 천연두에 걸린 백성들의 관계를 나타낸 작품이다. 몽수는 왕손으로 그 당시 천하게 여기는 학문인 의술을 연구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게다가 한양에 천연두가 횡횡했을 당시에는 상복을 입고 있었기에 백성들을 모른 척 하는 것이 오히려 직분에 맞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수는 예법에 구애되어 모른 채하고 떠나는 것이 불인(不仁)하다고 생각하여 백성들을 위해 의술을 펼쳤다. 이러한 몽수의 태도에 백성들이 감동하여 항상 그를 뒤따르는 무리가 있었으니, 이는 몽수와 백성들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仁)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화이다.

몽수는 마음이 아파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술을 가지고 있는데도 예법에 구애되어 모른 채하고 떠나간다는 것은 불인한 것이다.”하고는 인척의 집으로 돌아와 그 비법을 폈다. … 몽수가 문을 나가서 다른 집으로 가면 수많은 남녀가 앞뒤에서 옹호하였는데, 그 모여 가는 형상이 마치 별떼가 움직이는 것과 같았으므로 그가 가는 곳에는 뿌연 먼지가 하늘을 가리어, 사람들은 바라만 보고도 이몽수가 온다는 것을 알았다.(蒙叟心惻然自語曰。吾有術可救。爲禮法拘。懷之去不仁也。遂還從姻戚家。發其祕。… 蒙叟時出門適他家。衆男婦簇擁後先。屯如蠶以去。所至黃埃蔽天。人皆望而知李蒙叟來也)

다산 5전을 살펴보면 마치 각각의 작품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정약용에 대한 연구를 하고 다시 작품을 바라본다면 각기 다른 이야기들이 구슬이 꿰어지는 지점이 보인다. 바로 평상시에 정약용이 이야기한 인(仁)에 관한 이야기로 어떻게 인(仁)을 행해야 하는지에 따른 행인론(行仁論)으로 귀결되는 지점이다. 정약용은 공자의 도(道)를 한마

디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교제를 잘하는 것 [善於際]’이라고 규정하기에 인(仁)은 구체적 인간관계 속에서 실행되는 도덕규범의 구현인 것이다. 또한 그는 행인론(仁行論)의 인식을 통해 유교의 본래적 의미와 공자의 도(道)가 지닌 바른 의미를 해석하고자 시도했으며, 나아가 이를 통해 인간 존재의 근본구조와 인간사회의 질서가 지닌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하였다.<sup>16)</sup>

## 5. 결 론

조선 후기 대표적 실학자인 정약용에 대한 연구가 문학의 영역에서는 한시에 국한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정약용 문학연구에 대한 외연을 넓히기 위해 본 논문을 작성하였다.

본격적으로 다산 5전(傳)을 논하기 전에 정약용의 문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는데, 그의 문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세 가지 예를 들었다. 첫째는 중국의 고사를 용사(用事)하는 것은 비루한 것이니 우리나라 글에서 사실을 취하라는 문장론이었다. 둘째는 정약용이 이인영이라는 청년에게 쓴 글을 발췌해 그가 생각하는 문장이란 어떤 것인가를 살펴 보았다. 정약용이 생각한 문장이란 도(道)를 바라면서 사서(四書)로 수양을 하고 가슴속에 가득 지식을 넓혀, 그 마음속에 쌓아둔 것이 큰 바다가 되어 넘치듯 하면 저절로 명문(名文)은 발현된다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오학론>에서 밝힌 정약용의 문장에 대한 생각을 인용하여 작자의 창작동인이 되는 지점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찾아보았다.

다음으로는 <죽대선생전>·<장천용전>·<조신선전>·<정효자전>·<몽수전>을 ‘다산 5전(茶山 5傳)’이라고 명명한 뒤, 작품 하나하나의 서사구조를 면밀히 살펴보았다. 크게 전통적인 전(傳)의 분석방법인 ‘도입부-행적부-논찬부’로 나누고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작은 서사단락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설명을 곁들여 작품을 분석하였는데 다산의 5전(傳)이 처음 연구되는 것은 아니나, 익숙한 작품은 아니기에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작품을 분석한 결과 다산의 5전은 표면적으로만 보면 여타 다른 전과 큰 차이점이 없어 보인다. <장천용전>을 제외한 네 작품이 모두 ‘도입부-행적부-논찬부’의 3단 구성을 충실히 이행하였고, <조신선전>에만 실명이 나와 있지 않을 뿐 다른 작품들에는 도입부에서 성명과 가계에 대해 언급되어 있었다. 그러나 작품을 찬찬히 음미해보면 형식이 아니라 내용면

16) 금장태, 앞의 책, p.124.

에서 정약용 특유의 색이 나타난다. 특히 인(仁)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愛人)’이라는 공자의 뜻을 이어받아 인(仁)을 ‘사람을 향한 사랑’이라고 구체화시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로 보는 점을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였더니, 행인론(行仁論)에 대한 평소에 다산의 생각이 글로 발현되는 지점을 찾을 수 있었다.



## 참고문헌

96

정약용, 『與猶堂全書』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강태철, 「茶山 文學의 寓意性 考察」,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금장태, 『인과 예, 다산의 논어 해석』,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김근태, 「조선후기 인물전의 야담취향성 고찰」, 『한국한문학연구』, 1989.

김근태, 「조선후기 인물전과 서술방식의 변이양상 시론」, 『승실어문』 7, 1990.

이덕근, 「燕巖과 茶山의 文學比較 研究」,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창론』, 중앙대학교 한국예술연구소, 1979.

박희병, 「이인설화와 신선전(Ⅱ)」, 『한국학보』 15, 일지사, 1989.

방미옥, 「茶山 정약용의 ‘전’연구: 새로운 인물형 구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정순희, 「정약용 전의 명명과 주제 구현 방식」, 『어문연구』 63, 어문연구학회, 2010.

채미화, 「茶山 정약용의 문학사상 연구」, 『한문학논집』 10, 1992.

## 다산 5전 원문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第一集詩文集第十七卷○文集, 傳

### <죽대선생전(竹帶先生傳)>

竹帶先生者。李宗和之別號也。家貧無貲。截細竹寸許。聯貫以爲纓爲帶。故少年呼之爲竹帶先生。其先韓山人。牧隱先生李穡之後也。世世蟬奔。入我朝有觀察使蓄。左參贊墳。左議政惟清。觀察使彥浩。又蔭仕二世。而有左贊成竹泉德洞。又其下有司憲府持平性源。縣監景沆。蓋名門之赫赫者也。後四世時否不仕。而竹帶先生益窮困無室家。嘗於樊巖蔡相國之門。寄之以館穀。相國厚遇之。而賓客出其門者皆易之。以爲窮老無能爲也。嘉慶辛酉秋。睦萬中。洪羲運。李基慶等。操生殺之權。日除善類。如草薶禽獮。其蜚語得臺啓。以殺以竄之外。以風聞捕李寬基。納于鞫廳。以風聞捕蔡弘定。移于刑曹。以風聞捕權徹。入于捕廳。以風聞捕趙尙兼。投于嶺外。凡小拂其睚眦之怒者。卽呼吸陷之。死如反掌。然威既立。謀奪蔡相國之爵。冬脅知舊摺紳章甫。發文聲討。造蔡相國之案。凡平日受相國恩愛者。咸差職司。俾主其論。其受恩愛稍輕者。授之以次職。有敢回避者。卽冒之以西教之目。吼嗥如獅虎。驅策如犬羊。於是上自卿宰。下至韋布之士。咸惴惴然屈躬伏地。頓首服罪。以恭聽其號令。無一人敢枝梧逡巡者。不數日而會者數百人。竹帶先生乃以此時。抵書與羲運。基慶等。反覆開陳訟蔡相國之冤。其言哀切。有足感動。推尊兩人爲公正。其自李家煥。丁鋪以下爲魚爲肉。不暇顧。唯救拔我樊巖相公。是祈是禱。庶幾其紓秋毫之末。乃惡黨弗之省。督聲討益急。時竹帶先生焦勞連日夜。疋羸不能步。乃猝起穿敝衣結竹纓帶竹帶。赴衆會之所。踰踰歷階而上。據中堂箕踞而坐。瞋目視會中。良久不語已。英風習習然洒人。罵曰汝茲狗子等。汝祖可追奪。汝高祖可追奪。我樊巖相公不可追奪。汝茲逆賊漢等。此何事。汝等頂踵毛髮。皆樊翁所涵育。卽汝父汝祖。皆樊翁所庇覆。汝等忍爲是乎。逆賊漢等。何不遂殺我。卽前取通文。裂之扯之。嚼之踏之。盡蹴其筆硯酒瓶。且哭且罵而出。當是時。會者氣奪面眊。莫之敢一言。厥明日李基慶以風聞捕竹帶先生。移刑曹拷掠殊死。流于丹城縣。竹帶先生談笑以就道。遂追奪蔡相國爵。竹帶先生既去之越十日。李基慶方晨起未盥。忽有一女子被髮揜袖。持大刀。其刃若新發於硎。直入戶向李基慶刺之。基慶猝惶急走入內。刃中其衣絮。女子逐之。被諸婢僕扶救。不能脫。女子罵曰汝茲逆賊漢。吾父將道死。汝宜死吾手。汝今縱婢執我手。汝不放吾父。汝終死吾手。基慶乞曰敢不圖所以亟還。女子翩然出口。母敢背此言。於是聲震國中。以爲竹帶有子矣。竹帶先生既至丹城。嶺南諸士友。爭致錢米布帛。日飫酒肉美味。猝富貴安樂。在謫七年而反。卒于家。

外史氏曰余昔與竹帶先生好。恂恂如不能言者。乃唯竹帶先生獨能爲樊翁一聲。士其可知耶。

先生固烈烈義士。乃其女亦節俠也哉。或曰其劍術疎非也。其志欲生刳之。若曹沫之於齊桓。故不遂殺也。樊翁中年離讒。唯竹坡俞公恒柱不貳之。辛酉之禍。唯竹圃沈公達不投降於洪李之門。竹帶先生又此立節。故世稱蔡門三竹。

### <장천용전(張天慵傳)>

張天慵者。海西人。舊名天用。觀察使李公義駿巡至谷山。與之游。改之曰天慵。遂以天慵行。余任谷山之明年。鑿池爲亭。嘗月夜清坐。思聽洞簫。獨語獨歎。有進于前者曰邑有張生者。善吹簫鼓琴。顧其人不喜入官府。今急發吏卒。至其家擁之可得也。余曰否。使其人而誠有執也。可擁之使至。又豈能擁之使吹哉。汝其往喻吾意。不肯母相強也。俄而使者復張生已至門矣。至則脫綱巾跣足。衣而不帶。方沈醉。眼光瀏瀏然。手有簫不肯吹。索燒酒不已。與之三四杯。益醕酏無所省。左右扶而去。宿之于外。明日再召至池亭。只予之一杯。於是天慵斂容而言曰簫非吾所長。長於畫。令取絹本來。作山水神仙胡僧怪鳥壽藤古木凡數十幅。水墨凌亂。不見痕跡。皆蒼勁鬼怪。出人意慮之表。至摹狀物態。毫毛纖巧。發其神精。令人駭愕叫呶而不自已。既而擲筆索酒。又大醉。扶而去。明日又召之。已肩一琴腰一簫。東入金剛山矣。越明年春。燕使來。有嘗有德于天慵者。掌修平山府館廡。要天慵施丹碧。而同事者持父服。天慵見其杖奇竹有異音。乃夜竊之。鑿孔爲洞簫。登太白山城中峯之頂。吹之竟夜而還。同事者恚甚叱之。天慵遂去。後數月。余解任歸。後數月。天慵特畫岢嵐山水以寓之。且言今年當徙居嶺東云。天慵有妻貌甚惡。夙抱癱瘓之疾。不能績不能鍼不能爨不能生產。性復不良。常臥詘天慵。而天慵眷係不少懈。鄰人咸異之。

### <조신선전(曹神仙傳)>

曹神仙者。賣書之牙儉也。紫髯而善諧。目閃閃有神。凡九流百家之書。其門目義例。無不領略。纒纒然譚論。如博雅君子。而性多慾。凡孤兒寡妻之家所藏書帙。輒以輕賈取之。及其賣之也。倍讎焉。故賣書者多短之。又諱其家居。人無知者。或云在南山之側石假山洞。亦不明也。乾隆丙申間。余游京師。始見曹神仙。顏髮如四五十者。至嘉慶庚申間。其貌不小衰。一如丙申時。近有人云道光庚辰間亦然。但余未之目見也。昔少陵李公云乾隆丙子間。吾始見此人。亦如四五十。總計前後已踰百年久矣。紫髯豈理耶。

外史氏曰道家以清心寡慾。爲飛昇之本。乃曹神仙多慾。猶能不老如此。豈世降俗渝。神仙猶不能免俗耶。

### <정효자전(鄭孝子傳)>

鄭孝子寬一者。道康縣人也。生有至性。酷愛其親。方六歲時。其父巡稼于田。夜寒孝子謂其母曰田有廬乎。曰無有。孝子勃然起而將出。母曰莫夜孺子安往。曰父寒於原。兒煖於室。安乎哉。母固止之。孝子兀然坐牕下。父反而後息焉。後數年。其父遠服賈。寄家書曰平安。孝子抱書泣。其母怪而問之。曰家君殆有疾乎。字畫其不顛乎。及歸而問之。病則危矣。其父又病氣痢殊死。憶園茶。忽有人指茶處得瘳。是日孝子夢。其父病痢覓茶。覺而泣言。及歸而驗之。事若合符矣。其父常從遠方歸。雖暮饘饔必豫具。父異之。母曰兒言今夕父且還。我如其言而已。十二歲時父病。孝子露禱天得瘳。斯其幼年實行之百一也。既壯力學。涉獵經史。旁及兵法醫家。以至鳩治風鼓寄骸之餘。靡不汎濫焉。家貧賣藥以養親。及其死也。蓋微疾也。家人不以爲憂。既數日。孝子呼其父而坐之。三呼三應而不言。良久而後語之曰死生如晝夜。君子勿悲也。兒知今年有此事。其日月所不知也。今脈已亂。非藥可救。兒有二雛。願以慰心。越三日而絕。年纔三十。既踰月葬于節度營之東七里甌峯之下負西之原。乃孝子舊所自占。手植松柞。欲以葬其親者也。父曰始攝。臨其壙而哭之曰汝一瞑而我有三失。失子焉失友焉失師焉。

外史氏曰父子天性也。然世蓋有拊心歐血。以愬其子于天者矣。或位隆貲高。丐諛辭以崇飾者曰。雉雛于竈。鯉躍于水。可悉信哉。雖血指鬻腓。綽楔相望。又非曾閔之攸蹈也。若鄭孝子者。死而使其父狀其孝。以乞言于薦紳。一唯夫孩提之愛。而藹然情見于色。斯無忤矣。子固孝矣。乃其父亦慈父也哉。孝子既死之越六年嘉慶辛未之秋。茶山樵者。

### <몽수전(蒙叟傳)>

李獻吉字夢叟。別字蒙叟。系出璿潢。恭靖王別子德泉君厚生其祖也。厚生之後。世世輝赫。而冢宰準尤著。蒙叟少聰明強記。從長川李嘉煥先生游。博覽羣書。既而見痘疹方。獨自潛心求索。然勿令人知也。乾隆乙未春。有事至漢陽。適麻疹大起。民多夭札。蒙叟意欲救。時服衰不可。默而歸。方出郊。見肩樁背藁裡過者。俄頃以百數。蒙叟心惻然自語曰。吾有術可救。爲禮法拘。懷之去不仁也。遂還從姻戚家。發其祕。於是凡得蒙叟之方者。危者以安。逆者以順。旬日之間。名聲大振。號呼乞憐者。日填門塞巷。尊者僅入其室。賤者幸而至階下。或窮日而後始見其面。然蒙叟於疹。既耳順。接數語。已逆揣其證形。隨授一方。謝之使去。亦無不立效者。蒙叟時出門適他家。衆男婦簇擁後先。屯如蟻以去。所至黃埃蔽天。人皆望而知李蒙叟來也。一日爲惡少輩所謀。驅至一僻處。鎖門而絕其蹤。於是滿城磬磬。索李蒙叟所在。有告者。衆乃槌其門出之。有羸悍負氣面辱之。甚者欲毆擊蒙叟。賴人解得已。然蒙叟皆溫言摧謝。亟以方授之。既而蒙叟不自堪。乃口號治疹諸法。令人按行。於是僻鄉窮土。爭相傳寫。信如六經。雖嘗於醫者。但如其言。亦罔不效。世稱一婦爲其夫請救。蒙叟曰汝夫之病亟矣。但有一藥。汝不能用。婦固請而蒙叟終不言。婦度不可救。買毒藥以歸。卽砒礪。酒攪置閣上。將以殉也。出戶外

泣。入而視酒。酒已罄。詢其夫渴而飲也。趨而至李蒙叟求救。蒙叟曰異哉。吾所爲一藥。是其所飲。度汝不能用。不以告。今其活。天也。歸視其家。病則愈矣。蒙叟性坦率。然嘗言後十二年疹必復起。至期果驗。於痘亦多奇中。

外史氏曰余及見蒙叟。其爲人顴而鰐鼻。喜譚論恒笑。於前人特慕尹鐫。嘗曰白湖成德之靜菴。靜菴未成德之白湖。蓋古論之餘也。君子以爲未然。